

포섭된, 신화에 대한 도전
나약한 언니들의 <언프리티 랩스타>와 강인한 소녀들의 <프로듀스 101>

김자양

센 언니들의 집합소

대한민국 예능에서 ‘센 언니’란 캐릭터는 꾸준히 진화해 왔다. 과거에는 코미디언 이영자와 같이 물리적으로 힘이 센 사람이 이 캐릭터를 현시하였다면, 근래에 들어 센 언니의 의미는 확대 및 변형되었다. 여권이 신장됨에 따라 이 말에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의미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텔레비전에서 남성 권위적 체계가 상정한 여성 표상을 거부하고 남성들에게 할 말은 하는 여성들이 센 언니란 닉네임을 얻기 시작했다. 즉 남성우월주의 코드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기호적으로 이에 저항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다. 더불어 특정한 패션, 헤어, 화장법 등도 이 캐릭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음악 장르가 센 언니의 이미지와 직결되기에 이르렀다. 바로 힙합 장르다.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언프리티 랩스타>는 기존의 힙합 장르에 대한 인식을 뒤집은 프로그램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 음악계에서 힙합은 일종의 마초성을 표출하면서 남성 중심적 장르로 정착해왔다. 단적으로 국내에서 대부분의 힙합 가사는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담고 있고, 이로서 여성이 지나치게 대상화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힙합 장르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낡은 이데올로기 신화를 재생산하는데 기능한 셈이다. 그러나 <언프리티 랩스타>는 여성 랩퍼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러한 신화에 도전했다.

원형적으로 힙합은 반체제성과 자유로움을 그 특성으로 한다. 그렇기에 같은 힙합도 여성이 주체가 될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남성우월주의 문화를 그 뿌리로 하는 한국 힙합도 여성 랩퍼들이 주축이 되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랫동안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여성 랩퍼들이 힙합이란 매체를 통해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고, <언프리티 랩스타>가 선두가 되어 이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그 속에서 제작진은 새로운 여성상을 실험했다. 프로그램은 여성 랩퍼들의 성장과 그들 사이의 경쟁을 조명하면서 힙합이 남성들만의 장르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특히 매 시즌 소위 센 언니라 불리워진 출연자들은 이러한 메시지의 효과를 증폭하는 역할을 했다. 시즌 1에서 제시와 치타가 구축한 이 캐릭터의 유

령은 이후의 시즌에서도 다른 탈을 쓰고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번 시즌 3에서 이 몫을 톡톡히 수행한 인물은 바로 ‘나다’였다. 그녀는 기존의 쉐 언니의 캐릭터에 돌발적인 말과 행동과 같은 사차원적인 요소를 가미했고, 그 결과 시즌 3의 이슈 메이커로 등극했다. 춘장 립스틱, 와사비 립스틱과 같은 그녀의 독특한 화장법도 이 캐릭터로서 그녀를 돋보이게 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이외에도 ‘미료’나 ‘자이언트 핑크’와 같은 랩퍼들 역시 쉐 언니의 전형성을 보여주었다.

포장지 속 소녀들

한편 올 상반기에 처음 선보인 <프로듀스 101>은 여성 아이돌이라는 가장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소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제작진은 프로그램 아이템을 단순히 여성 아이돌 가수에서 아이돌 연습생으로까지 발전시켰고, 이 시도는 적중했다. 데뷔라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회를 놓고 벌이는 이들의 도전과 경합은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 아이돌 연습생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감정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이야깃거리였다. 101명의 연습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와 에피소드 또한 매혹적이었다. 여기에 제작진은 국민 프로듀서라는 장치를 더해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이끌어냈다. 이러한 연출력에 힘입어 <프로듀스 101>은 4.4%라는 최고 시청률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프로그램은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다. 비판의 날은 출연자들을 상품화한 제작자들을 향해 있었다. 즉, 제작진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선정적 요소를 과도하게 끌어들이는 것이 문제가 됐다. 선정주의는 별다른 고민 없이 쉽게 시청자들을 꺾는 장치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미끼이다. 하지만 동시에 텔레비전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다. 도가 지나칠 시에 방송의 공익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프로듀스 101>도 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실제로 제작진은 초반부터 출연진들의 몸매를 강조했고, 외모 지상주의에 입각한 장면들을 많이 집어넣었다. 출연자들 중에서는 미성년자들도 있었기에 이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남성들에게 건전한 야동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해당 방송국 국장의 발언은 애초에 프로그램이 어떤 의도 하에 만들어졌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의 공식 노래인 ‘pick me’는 이러한 말초적 코드를 적나라하게 표출하고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

신을 뽑아 달라는 내용의 다소 낮부끄러운 가사를 담고 있는 이 노래는 프로그램의 콘셉트 자체를 상징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렇듯 제작진은 여성 아이돌 연습생을 남성 판타지의 객체로 인식했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적 관점에서 소구되는 여성 아이돌의 캐릭터와 이미지를 제조했다. 프로그램은 연습생들의 주체적인 캐릭터와 이미지를 말소하고 소녀들을 포장지 속 상품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뒤집어 보기

지금까지, <언프리티 랩스타>가 남성 중심적인 힙합 문화에 도전한 반면 <프로듀스 101>은 여성의 상품화 현상에 일조했다는 견해는 널리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입장은 그 논리가 탄탄했고 당위성도 분명했기에 대세론이 될 수 있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언프리티 랩스타>를 전통적인 여성 표상에 도전한 진보적 프로그램으로 간주했던 것과 달리 <프로듀스 101>은 남성들에 의해 상품화 된 여성 이미지를 재생산한 보수적 프로그램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으로 두 프로그램을 모두 설명했다고 단정 짓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지점들이 남아 있다. 이 도식만으로는 프로그램 깊숙이 잠재해 있는 복잡한 코드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뒤집어 생각해보자. 어쩌면 <언프리티 랩스타>가 역설적으로 남성적 우월주의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또한 <프로듀스 101>이 새로운 여성주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견해가 상당히 일리 있을 수 있다.

<언프리티 랩스타>는 애초에 <쇼미더머니>의 여성판으로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쇼미더머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기본 구조를 그대로 차용했다. 그러한 분위기와 구조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 힙합의 고질적 문화와 무관치 않다. 즉, 마초성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러한 콘셉트가 여성 랩퍼에 의해 구현될 때 색다른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프리티 랩스타>의 제작진은 <쇼미더머니>와의 연결고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으로까지 나아갔다. <쇼미더머니>에서 활약했던 프로듀서들과 랩퍼들을 프로그램에 섭외했고, 이들을 여성 랩퍼의 멘토로서 위치시켰다. 남성 힙합과 별개로서 여성 힙합을 상정하지 않고 그 둘을 수직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또한 중요한 순간들에서 여성 랩퍼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이는

다름 아닌 남성 프로듀서였다. 그들은 여성 출연자의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누가 자신들의 트랙을 가질지 선택했다. 그 결과 여성 출연자들의 실력은 곧 남성 프로듀서로부터의 인정과 동일시되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여성 랩퍼들이 진실로 주체적이며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방해했고, 그녀들로 하여금 남성 프로듀서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랩을 하게끔 만들었다. <언프리티 랩스타> 속 여성 출연진의 진취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여전히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시각을 견지하게 된 것이다.

다른 집합의 원소로 전략하다

그런데 미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특정한 지점들에서 <언프리티 랩스타> 속 여성 랩퍼들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피소드 5에서 이러한 면이 잘 드러난다. 이 편에서 여성 랩퍼들은 남성 랩퍼들과 무대공연 순위를 놓고 경합하였다. 처음에 남성 랩퍼들은 여성 랩퍼들을 자신들과 견줄 수 없는 상대로 백안시하였다. 여성 랩퍼들 또한 동료 남성 랩퍼들을 자신들보다 더 나은 실력을 가진 상대로 인식했고,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공공연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공연이 전개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다. 자이언트 핑크를 필두로 몇몇 여성 랩퍼들이 남성 랩퍼와의 대결에서 선전하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제작진이 의도했던 메시지가 빛을 본 순간이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 타이밍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대중들은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근거 삼아 <언프리티 랩스타>가 남성 중심의 신화를 해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여겼다. 실력 대 실력으로 붙어 비등한 모습을 보여준 그녀들은 진정으로 쎈 언니 같아 보였다. 그러나 신화에 대한 도전은 오래 가지 못했다. 이러한 도전이 더 강력한 다른 신화로 인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의 남성 권위적 체계에 대한 저항이 약한 정도에서 멈춰 버린 것이다. 이러한 지점이 잘 드러났던 에피소드 7을 살펴보자.

7화에서는 여성 랩퍼들 간의 디스 배틀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여성 랩퍼 4인은 2대 2로 편이 갈려서 디스 배틀을 해야 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무대와 관객석이 어떻게 배치되었냐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디스 배틀을 지켜보는 남성 프로듀서와 랩퍼들이 위치하는 장소는 프로그램이 초반에 의도했던 신화에 대한 도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우선 디스 배틀을 치르기 위한 격투기 링과 같은 무대가 보인다. 여성 랩퍼

4인은 그 무대 위에 서있다. 배틀이 시작되고, 그녀들은 랩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험한 말들을 쏟아 낸다. 강렬하고 짜릿하다. 쉐 언니가 강렬한 순간처럼 느껴진다. 이런 그녀들을 저 위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남성 프로듀서와 랩퍼들이다.

이러한 구조는 판옵티콘과 닮아 있다. 판옵티콘은 죄수들이 보이지 않는 감시자, 혹은 없을 지도 모르는 감시자를 내면화 하여 자발적 감시에 이르도록 고안되었다. 위에서 한눈에 죄수들을 내려다볼 수 있게 한 설계는 여기서 기인한다. 그런데 여성 랩퍼들이 그러한 판옵티콘 속 죄수와 겹쳐 보인다. 그녀들은 자신들을 응시하는 남성 프로듀서와 랩퍼들의 존재를 내면화했다. 그들의 반응과 평가는 그녀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받아들여야 하는 권위로서 작동하였다. 그녀들은 이렇게 남성 중심의 힙합 체계를 자신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조건으로서 인정하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장치들로 인해 초반에 카리스마 넘쳤던 쉐 언니들도 어느새 남성 힙합의 권력체계에 포섭되고 만다. <언프리티 랩스타>는 신화에 대한 진보적인 도전이 사회 내에서 큰 힘을 발휘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었다. 피상적으로 프로그램 속 여성 랩퍼들은 힙합이라는 채널을 통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만들었고, 이는 해방구로서 기능하는 듯 했다. 그러나 이 통로는 다시 남성 힙합이란 권위에 의해 차단되고, 호기로운 도전은 문화적으로 예방 접종의 효과를 내는 정도에서 그쳐 버렸다. 프로그램에서 의도했던 여성 랩퍼들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이미지는 나중에 가면 온데간데없다. 중국에 <언프리티 랩스타>와 그 안의 여성 랩퍼들은 <쇼미더머니>로 상징되는 남성 힙합의 수직적 배열 그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대중들 기억에 남는 건 그녀들의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그래서 쉐 언니라 느껴지는 잔여 이미지일 뿐이다.

그 자체로 하나의 집합이 되다

이와 달리 <프로듀스 101>과 그 안의 멤버들은 <언프리티 랩스타>와는 완전히 다른 판을 만들어 냈다. 모두가 처음에 1등에서 101등까지 줄을 세우는 방식으로 인해 소녀들이 원자화될 것이라 예상했다. 여기에 선정주의가 더해지면서 그러한 걱정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이는 기우가 되었다. 소녀들은 척박한 조건 속에서 뜻밖의 수평적 유대를 생성해냈다. 그녀들은 매주 주어지는 미션을 동료들과 협력하여 수행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닌 연대와 유대의 논리가 프로그램을 지배했다. 비

록 방송이 거듭될수록 소녀들이 포장지 속 상품이 되어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대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적인 면이 존속될 수 있었다.

더불어 소녀들의 멘토 역시 여성이었다는 점도 차별화되는 전략이었다. 여성 멘토들은 소녀들이 남성적 권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소녀들은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의 온전한 집합이 되었다. 처음에 유약해 보였던 소녀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동료 연습생들과의 협력과 여성 멘토의 도움으로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이야기를 완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남성 권위의 체계가 끼어들 여지는 없어 보였다.

진정한 센 언니를 향해서

여성학자 주디스 버틀러에 따르면 젠더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자연’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산물’이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여성/남성의 이분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여러 부류의 이질적 존재들이 있다는 의미이다. <언프리티 랩스타>가 제시하는 여성상과 <프로듀스 101>이 보여주는 것으로 다르다. 전자가 힙합이란 문화적 토양에서 생성된 모델이었다면 후자는 아이돌 문화에서 탄생한 표상이었다.

최초에 <언프리티 랩스타>의 제작진과 출연진들은 여성/남성의 이분법에 정면 도전했다. 무엇보다 프로그램 속 센 언니 캐릭터는 여성이 주체가 된 힙합 문화가 잉태한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젠더 모델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센 언니들은 <쇼미더머니>로 대표되는 남성우월주의 힙합 시스템에 종속되고 말았다. 반면에 <프로듀스 101> 속 소녀들은 수평적 관계와 연대 의식을 통해 자신들만의 고유한 체계를 생성 및 유지했다. 진짜 센 언니는 다른 데 있었다.